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4자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 위해 필요”

〈남·북·미·중〉

“북-러 신조약 등으로 국제협력 공간 취약해져 4자회담 성사 위해서는 주체성 확립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8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언주 의원, 김병주 의원, 장경태 의원, 위성락 의원, 김문수 의원, 이성운 의원, 정준호 의원, 김영환 의원, 박선원 의원, 윤준병 의원, 이정현 의원과 함께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이어서 '창립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토론회' 개최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을 기념하는 토론회는 남북 긴장고조와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고, 미·중의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공간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북아 평화공존포럼” 대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 평화공존 위기의 시원지인 한반도 평화 위기를 맞아 이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으로 4자회담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러 신조약 체결과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공



8일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 총회 및 1차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이 취약해졌지만, 민생의 근간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4자회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으로 양무진 총장(북한대학원대학교), 발제는 이희욱 교수(성균관대학교), 흥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국립외교원 원장)가 맡았다. 이어 토론회에는 김희교 교수(광운대학교), 이해정 교수(중앙대학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정동영 의원, 김병주 의원, 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방미 외교단의 단장을 맡아, 미국을 방문하여 22대 국회 첫 야당 외교를 수행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 방문 때 “미국 연방의회 의원, 국무부 관리, 싱크탱크 전문가 등에게 4자회담을 역설하였고, 일부 공감하는 의견도 청취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 ‘Korea First’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상식이며, ‘Korea First’

의 핵심 중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균열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위기 돌파를 위한 4자회담이 난관이 많겠지만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그는 “4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주체성의 문제가 핵심이며, 강대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체성 확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지역주민 생활기술 교육 진행”

임종명 전북자치도의원, 교육청 대상으로 필요성 강조
굴착기운전·화훼장식 등 10개 분야 강좌 개설 기여
교육은 12일부터 19일까지 남원용성고등학교서 진행

남원 시민들이 나무의사 등 각종 기술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굴착기운전, 지게차 운전, 측량, 화훼장식, 조경설계, 조경시공, 스케치업, 전기(내선)공사,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2024년 남원 지역주민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명 의원이 전북자치도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한 결과물이다.

남원용성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생활기술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로 5~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부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스케치업 교육은 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3D모델링 프로그램으로 투시도, 조감도 등을 직접 구현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임종명 의원은 “남원 시민은 이번 강좌를 통해 누구는 나무 의사를 꿈꾸고, 누군가는 디자이너, 엔지니어, 정원설계 전문가, 도시설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각 분야에서 꿈을 찾고, 실현하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고기를 사 먹는 것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평생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남원 시민들이 기술교육을 통해 미래 희망을 키워나가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남원용성고등학교 특성화본부(063-630-3585)와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school.jbedu.kr/yongsu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동학농민혁명 정신 되새겨 위기 극복 앞장”

염영선 도의원, 전북자치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자전거 순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 위해 내달 조례 개정키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지난 5일부터 4일간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자전거로 순례했다.

염영선 도의원은 자전거에 ‘새야새야 파랑새야’ 깃발을 매달고 지난 5일 정읍시 만석보를 시작으로 남원시 교동산성을 거쳐 8일 최종목적지인 전주시 전라감영 선화당에 도착했다.

정읍시 교동산성에서 출발한 염 의원은 4일 동안 10개 시군(정읍, 부안, 고창, 남원, 장수, 순창, 임실, 김제, 원주, 전주) 20개 유적지를 거쳐 350km의 대장정을 완주했다.

염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19세기 말처럼 위태롭다. 혼란의 시기에 보국인민 기치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되새겨 21C 동학군이 되고자 유적지 순례를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9월에 열리는 전북



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농어업재해 대응 안정적 재원 확보

민주 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 재해에 대응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기금을 설치하는 ‘농어업 재해기금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이 8일 대표 발의했다고 알려졌다.



해대책과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업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조성 및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재해대책에 따른 지원과 농어업 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여 “농어업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농어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민주 이원택 의원 “가력선착장 국가어항대상 지정 쾌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8일, 부안군 가력선착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 차관 등 주무부처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가력선착장의 국가어항 선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